

함께 토론해요



물질약 칼럼

물사랑 아이디어

한 잔의 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_ 오은영 (주부)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이 둘 있어 매일 씻기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번 씻기는데요, 둘을 같이 욕조에서 목욕 시키는데 사용한 물이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서요, 다른 곳에 쓰려는데, 그냥 두기도 그렇고..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Re]

- *박대범 : 저는 걸레 빨고 화장실이나 베란다 바닥청소하고 그러는데요.
- *최동일 : 세차 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윤숙 : 초벌걸레를 빨거나 빨래를 애벌빨래 해도 좋고 그 물을 이용해 욕실청소를 한다면 물이 따뜻할 테니 때도 잘 지워질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해보는데 욕실도 깨끗해지고 아꼈다는 보람도 있어요.
- *손택수 : 화장실 변기물로 사용하세요. 좌변기 사용 시 위에 뚜껑을 열고 그곳에 물을 넣으면 절약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 찌꺼기가 있지만 좌변기 사용 후 내버리는 것이니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함께 토론해요

물질약 칼럼



물사랑 아이디어

'물' 있을 때 잘해!!

글_ 전병윤 (연구/개발)

'있을 때 잘 해' 라는 어느 가수의 노래가 있다.
 남편도 아내도 항상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있는 등 마는 등, 없는 등 마는 등, 시큰둥한 부부의 생활을 빗대어 한 노래이지만 이 노래의 의미는 우리들의 삶에 무한한 반성과 새로운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것 같다.
 복권이 당첨 되어서 돈이 많이 있다고 평평 쓰다보면 어느새 없어져서 알거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건강하다고 절제된 행동을 하지 않고 음주나 흡연을 마음대로 하다보면 평생 건강을 잃기도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있을 때 절약하지 않고 평평 쓰고 자제하지 않다보니 없을 때 후회하고 있을 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망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나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들이 있고 여름이면 장마가 오고 물난리가 나다보니 물이 많은 국가라고 오해를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질약을 하자고 절약 변기 사용, 물컵 사용하여 양치질하기,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 등 많은 물질약 캠페인을 실시하지만 사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에 국민들의 행동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유엔이 지적한 물부족 국가로 인식 된지가 오래된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물부족을 알리고 인식을 새롭게 시켜서 물을 절약하게 하느냐... 시간적 수돗물 공급, 물을 대량 사용하는 공장의 조업단축... 이런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물이 절약 된다고는 하지만 전근대적인 후진국 발상법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 할 뿐만 아니라 2만불 국민소득으로 가는 길목의 발목을 잡는 행정적 발생으로 국가경제에 커다란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한 가지이다. 국민 스스로 물부족을 인식하고 한 명 한 명이 절약을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이라든지 물을 절약하여 생산 할 수 있는 공장제품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 물을 절약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한 가정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정집에서는 빗물을 모아서 정제를 하여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욕조에 빗물을 모아서 물고기를 기르는 모습도 보였다. 놀랍기도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러운 마음이 더 들었다.
 그 조그만 빗물을 받기위해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모습, 그 정신은 지금 보다는 미래에 물이 없을 때를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 정신, 결코 잊을 수 없는 물 사용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도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아껴 쓰고 미래에 없을 때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물을 사용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쌀뜨물로 피부 가꾸기

글_ 김유진

여자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물절약 아이디어 입니다.
보통 물절약 하는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절약 아이디어는 특히 여성분들의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이라니 많이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쌀을 씻은 첫물을 버리지 말고 받아 두었다가 그 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 미용에 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모두 모두 물절약 합시다!!!!

물사랑 실천은 절약으로부터...

글_ 강상원

1. 빗물 받아
 - 1) 바닥청소 물로
 - 2) 화초 물로
2. 쌀 씻은 물 받아
 - 1) 화초 물로
 - 2) 찌개국물로
3. 세탁 마지막 헹군 물 받아
 - 1) 바닥청소 물로
 - 2) 아이빨래 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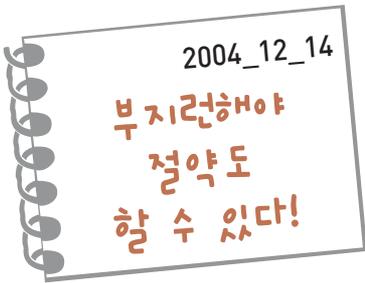
우리가족 물절약 방법^^

글_ 정완규

1. 가족 모두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
2. 어머니께서 세탁하고 남은 물로 걸레를 빠시거나 현관이나 베란다를 청소하신다.
3. 어머니께서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신다.
4. 변기에 벽돌을 넣어 놓는다.
5.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바꾼다.



물사랑 일기



n1852 (대학생/대학원생) | 저는 예전에 물사랑 캠페인에 가입은 하고서도 자주 들어와서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지만 집에서 항상 물을 아껴 쓰려고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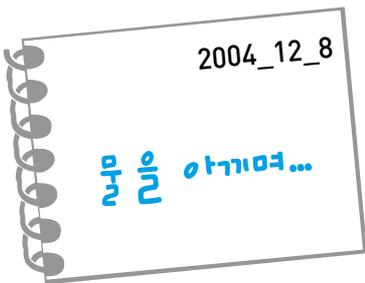
가끔 집에서 동생들이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달려가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잔소리를 하죠. 그리고 집에서 티브이를 볼 때도 고뇌하는 주인공이 물을 틀어놓고 울거나 하면 연기에 집중해서 보기 보다는 팔팔 쏟아져 나오는 물에 더 신경 씁니다.

제가 오늘 일기를 쓰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몇 일전 일입니다.

간만에 집에서 쉬는지라 빨래도 돌리고 대청소도 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다 정리하고 이 불을 세탁기에 돌리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와서 제가 잠깐 슈퍼에 갔다 온 사이에 빨래가 이미 다 된 상태인데 아직 빨지 않은 건 줄 알고 세제를 넣고 다시 돌린 거예요.

아휴~ 세제하며 또다시 행굴 때 쓰일 물하며... 암튼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빨래를 넣어놓은 다음에 슈퍼에 다녀왔어야 했는데... 암튼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빨래는 두 번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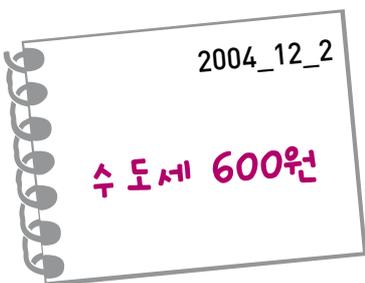
jisoo (초등학생) | 우리가족은 물을 아끼기로 하여 열심히 물을 아끼고 있다. 특히 나와 동생은 샤워 시간을 줄이고, 양치질할 때 컵에 받아쓰고, 세수할 때도 물을 받아서 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빨래를 4회분을 한꺼번에 같이 빠시고 세제는 아주 조금만 사용하신다. 아빠는 샤워할 때 아주 빨리 하신다. 난 이런 우리가족이 끝까지 물절약을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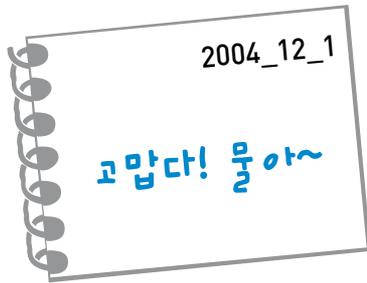
ywy21th (초등학생) | 학교 체육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평가인 씨름을 하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씨름 수행평가를 다 마친 뒤 축구를 하고 체육시간이 끝났습니다.

학교 체육시간이 끝나고 물론 교실로 올라가야겠지요. 손을 씻는 것은 필수이고요, 저도 물론 오늘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손을 씻는데 어떤 친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서로 물을 이용하여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입에 가득 담고는 다른 쪽을 향해 뿌리는 것을 하고 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물을 이용하여 노는 것은 물론 재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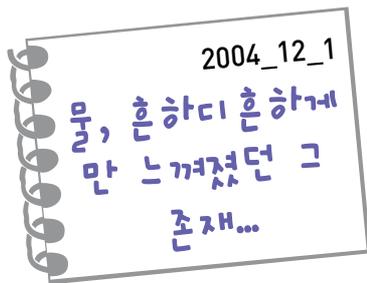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절약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 값이 오를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을 아껴서 물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라도 물을 절약하며 아껴야겠습니다. ^^



mari10042 (주부) | 이번 달 수도세가 600원이 나왔다. 내 눈을 의심해 보았지만 600원이 확실했다. 물사랑 동호회에 가입한 후 나름대로 절약한다고 빨래는 모았다 한꺼번에 돌리고, 아이들 목욕하고 행군 물로 나무리 내 몸 샤워하고, 설거지는 수도물을 쭈쭈쭈 가늘게 틀어서 하고(한바가지 정도면 설거지를 할 수 있음) 세수도 작은 바가지에 받아서 하고 난후 발밑에 걸레 놓고 발 닦고 등등... 노력한 결과인가 싶으니 기분이 엄청 좋았다. 이런 게 절약하는 즐거움인가보다.



nadaisalang (교직자) | 오늘도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보고 또 보면서 물과 사랑스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물을 마실 때도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 때도 사랑과 고마움을 나 오늘도 노래할 수 있어 더 행복한 하루였다. 그리고 복도 책장위에 놓여진 물에 대한 책이 보다 많은 학부모님들 손에 들려져있길 희망해보았다.



7seagulls (중학생) | “돈을 물 쓰듯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날 물로 보지 마”

물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12월의 첫날 이렇게 오랜만에 일기를 써본다. 마침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단수를 한단다. 그 시간동안 많은 것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구에 있는 학교도 모두 절수란다. 학생들도 그 흔하디흔하게만 느껴졌던 물의 존재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바뀌길 바란다. ‘무한한 듯 유한한 자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2004년이 끝나기 전에 꼭 알고야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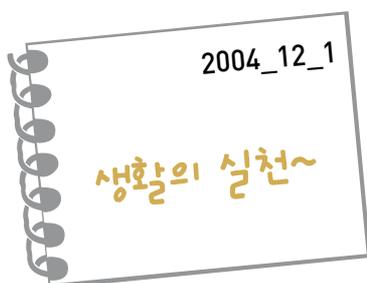


lovetime24 (초등학생) |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물을 평평 쓰고 있어서 곧 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유엔이 우리를 물부족국가 중 하나라고 지정했다. 그렇다. 우리는 얼마 안가서 물이 바닥날 것이다.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다간 말이다. 아무튼 나에게서는 너무 심각하게만 느껴졌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 집에서는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낭비되는 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변기에 벽돌을 넣고, 쌀뜨물은 식물에게, 되도록이면 세차는 세차장에서, 가끔씩 누수여부 확인, 양치질이나 세수할 때 물 받아서 하기 등이 있다.

난 이런 방법 중 내가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도 실천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iangelu (주부) | 집안일을 하는 주부가 되어보니 하루에 내가 얼마나 물을 쓰는지, 또 물을 쓰면서 이번 달은 얼마 썼는지 체크를 하게 된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옷을 많이 버려서 빨랫감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빨래별로 분류해서 최대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까를 생각했다. 생활 속에서 한번씩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

